

정치기사 신뢰성·객관성에 충실했으면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일반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기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관련 보도 시 언론사의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자세에서 충실한 보도를 하는 정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전원 전업주부〉

부도덕한 고위층엔 따끔한 지적 있어야



항상 작은 소리에도 소중히 귀 기울이고, 고위층의 반성없는 부도덕한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사에 담겨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2만호 발행을 계기로 서민입장을 대변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표 신문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임가춘 환경미화원〉

택시기사·근로자 서민에도 귀 기울이길



광주일보가 항상 지역 민심을 잘 읽고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 등 고위층의 의견만 비중 있게 다룰 게 아니라 택시·버스기사, 회사원, 공장 근로자, 주부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신문을 만들어 시민과 독자에게 사랑받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서영선 택시기사〉

사회적 약자 관심 갖고 나눔에도 앞장을



2만호 발행을 축하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특히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수많은 지역 공익사업에 기여한 공로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나눔·희망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정승욱 (사)희망나눔 공동대표〉

■ 광주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발표 ’… 주요 내용과 과제

연료비 지급 방식 ‘표준연비제’로 전환 임원 인건비 한도 8800만원으로 낮춰

연 10억 안팎 예산절감엔 실효성 논란

광주시가 ‘시민 혈세’로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절감액이 10억원 안팎에 불과한데다 시내버스 업체 반발, 연료비 축소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 등도 우려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27일 “지난 1월 준공영제 운송위가 산정 등을 위한 전담팀하고 4차례 회의 끝에 마련한 개선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오는 28일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비용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는 오는 2017년부터 실제 사용량 지급방식에서 표준연비제로 전환된다. 표준연비제 시행 자체는 공영제 운영중인 6개 특·광역시 중 대전이 유일하다. 표준연비제는 실제 연비와 관계없이 운행속도, 승객수, 정류장수, 교차로수 등 운행환경을 고려해 산정한 노선별 표준연비에 따라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표준연비제는 연료비 절감은 장점이지만, 연료비 삭감에 따른 업체 반발과 연료비 절감을 이유로 여름철 에어컨 중단 등 대시민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비 및 관리직 인건비는 업체 규모별 적정인원을 산정한 뒤 표준원가를 차등지급하고, 고액연봉 논란을 빚어온 임원 인건비는 연간 한도액을 9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1000만원 하향 조정한다.

차량 정비비는 기존 단위 표준원가 지급 방식에서 저상, 대형 등 차량 형태별로 표준원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으며,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

식별로 별도 적용하고 동일 연식의 차량은 9년동안 표준원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보험료는 표준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정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 시내버스의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버스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에 지급하는 버스 1대당 성과이윤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50%) 조정토록 했으며,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기존 적정이윤에 대해서는 동결한다.

시는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내부광고 방송 도입, 버스 후면, 손잡이 광고 개발 등 추가 수입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시내버스 업체 외부 회계감사와 정산을 강화하고 준공영제 운영현황과 운송수입, 비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운송위가 절감 등의 개선안이 시행되면 새 광고수입 1억8600만원, 임원인건비 절감 등 7억7800만원 등 연간 9억64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개선안에 대해 운송업체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마지막 전담팀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해 버스조합 등과 표준운송위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5년간 광주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원한 재정규모만 1831억원(연평균 366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광고수익을 포함한 연 10억원 안팎의 예산절감 개선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예술제 참가한 미술 꿈나무들 27일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열린 제60회 호남예술제 미술부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5월의 눈부신 신록 아래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흥·보성 군수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수상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박 군수는 마치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전임 정중해 군수 시절 대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두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소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함께할수록 기쁨은 더 커집니다. 더불어 살아갈수록 행복도 더 커집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두가 웃음 짓는 따뜻한 세상을 K-water가 만들어갑니다

다목적 댐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며 수력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K-water는 다목적댐 19개 등에서 나오는 발전, 용수 판매 수익금 일부를 모아 댐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눔과 사랑의 의료봉사

미래를 키우는 꿈나무 교육

효 나눔 복지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지원

